

1998년 6월 9일

# 성도의 밤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별채 부록 : 어리이랴



9 1998

# 5월 9일



### 표지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삽입 사진 촬영: 마이클 반 돈,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34쪽 참조

### 어린이란 표지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함께 나누는 시간: 기도', 12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7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패트리샤 에이치 모렐
- 8 나의 두 번째 침례 첸 자 센과 마이클 제이 베어맨
- 16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18 "살인하지 말찌니라" 아더 알 배시트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 32 내 손으로 신권을 행사함 퓨코 레이
- 34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켈린 릭스 애덤스
- 46 에스터의 마지막 선물 베스 데일리



### 청소년란

- 10 아르헨티나의 당면 과제 디앤 워커
- 24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티파니 로키어
- 26 구름 위에서 클라우디아 아파레시다 아사스 아우구스토
- 28 미소지어야 할 이유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모

### 어린이란(별책 부록)

- 2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4 요나와 니느웨 백성 비비안 플스
- 6 뉴스 속의 친구들
- 8 나는 누구일까요? 물론경 퀴즈
- 10 아버지의 사랑 재키 요한슨
- 12 함께 나누는 시간: 기도 시드니 레이놀즈
- 14 이야기: 티일러의 명찰 파트리샤 워낙

18쪽 참조



어린이란 참조, 4쪽



성도의 벗은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령회: 보이드 케이 퍼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웬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제이 이 쉰슨, 존 엘 매드슨  
교파 파장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철크,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엔 마틴데일  
제작 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맥 켈렌  
디자이너: 세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테니즈 커비, 레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0호, 제 35권, 제 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8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최우광

발행소: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 기관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말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리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년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September 1998 no. 9. SONGDO-UT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nd new address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아름다운 수공예품과 사진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 1997년 8월호를 읽으면서 저는 그 가운데서 특히 "제대 한 바느질"에 게재된 사진과 수공예품이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출판하는 책과 교재와 교사 보조 자료와 잡지에 나오는 그림을 그리는 재능 있는 영감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우리아나 올리베이라 가우스티,  
브라질 베르나르도 스테이크,  
바에타 네베스 와드

내가 선교 사업을 하던 언어

저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교회 잡지로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종과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노르웨이 오솔로 선교부에서 배웠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마이스 오버 노르케(노르웨이어 판)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르만도 가르크 마르페즈,  
캘리포니아 벤츄라 스테이크,  
벤츄라 제1와드

[편집자 주: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을 위해 31개의 언어로 출판되는 교회 잡지는 전세계 어느 곳이든 우송될 수 있습니다. 애독자 편지란 이 나와 있는 쪽에 각 언어로 출판되는 언어에 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언어 중 어떤 언어로 된 잡지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역의 교회 배부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 결정한 것 하나

제가 지금까지 결정했던 것 중 가장 잘한 것 하나는 바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구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음으로써 배우고 얻은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1997년 8월호에 실린 고든 비 힝클러 대판장님의 대판장단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가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밀드레드 아이 톰바코 솔리스,  
에과도르 지피자파 지방부,  
지피자파 제1지부

영적 피로를 이겨냄

4년이 넘게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신앙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영적인 피로의 순간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영적인 피로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운 것은 바로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 안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파스칼 펠릭스 음볼로지 키아마나,  
스위스 제네바 스테이크  
프리브그 지부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요한복음 18:38)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세기 동안 씨름을 해 왔습니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리를 발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역시 또 하나의 적절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미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인 알리 하페드는 과수원과 정원을 갖고 있는 땅 부자였고 밭의 소출도 무척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돈놀이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고 “부자이기에 만족했으며, 그렇듯 만족했기에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날 나이트 제사장 하나가 알리 하페드에게 와서 만일 그에게 엄지손가락 크기 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가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14살 난 소년 요셉 스미스가 다음 성구에 고무되어 진리를 구함으로써 가능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리 하페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 말해 주겠습니까?”

이에 제사장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높은 산들 사이, 흰 모래를 뚫고 흐르는 강을 찾지만 하면, 그 흰 모래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리 하페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겠소.”

결국 그는 농장을 팔았고, 이자 놀이를 하던 돈도 회수했으며, 가족은 이웃에게 맡겨둔 채 다이아몬드를 찾아 집을 떠나,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구입한 사람이 낙타를 정원으로 데려가 물을 먹였습니다. 낙타가 물을 마시려 얇은 시냇물에 코를 담그는 순간, 이 농부는 물 속의 흰모래 안에서 한 줄기의 좀 특이한 섬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에 손을 넣어 이상한 빛을 내는 까만 돌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노인 제사장이 알리 하페드의 후임자를 찾아와 이 까만 돌에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정원으로 달려가 손가락으로 흰 모래를 저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밤금 전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인데,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알리 하페드가 잘 모르는 객지를 헤매고 다니기보다는 집에 그냥 머무르면서 밭이나 뜰 같은 곳을 잘 살펴 보았다더라면, 그는 아마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러셀 에이치 콘웰, *엄청난 다이아몬드* [1915년], 4~8쪽 개작)

진리를 찾는 것은 알리 하페드가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과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리는 먼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턱 밑에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진리에 걸려 넘어졌다가도 얼른 자신을 일으켜 세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처칠 이야기*, 케이 헬리 편 [1966년], 113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 가운데 하나로 소크라테스의 재판

이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법정에서는 그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첫째, 무신론자로서 국가가 규정한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는, 아테네 사회의 지식을 젊은이들 스스로 탐구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젊은이들을 망쳐 놓았다는 것. 마침내 대다수의 배심원들은 그의 유죄를 인정했고, 그에게 독약을 먹고 죽으라는 선고를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생각하여 찾아 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명상하고 탐구하며 평가하도록 격려하여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합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지도자들을 너무 믿는 나머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까봐 겁이 납니다. 맹목적으로 안주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봐 또한 두렵습니다. … 이들 스스로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에 따라,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주님이 지시하는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를 알게 합시다.” (*브리감 영의 설교, 존 에이 윌트 발췌* [1941년], 135쪽)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기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구하고 탐문하는 것은 그 진리가 영적인 것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또는 도덕적인 것이든, 모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14살 난 소년 요셉 스미스가 진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의문을 기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 성구의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저는 오랜 세월의 법정 경험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진리는 탐구하는 자세로 이를 구했을 때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모든 양서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로부터 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식을 구할 것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사랑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 (신앙개조 제13조)기 때문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듣고는 그를 찾아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와 엄청난 부와 으리으리한 집이 소문과 같은 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역대하 9:1)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왕의 질문에 답하자, 흠족해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역대하 9:5)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할 의문은 물론경에서 엠울레크가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희 마음속에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이들의 것이며 참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냐 하는 커다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느니라.” (엘마서 34:5)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탐구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언쟁을 일삼고 자신들이 대충 알게 된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디모데후서 2:23)

우리 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어떤 것이 주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를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1871년~1961년)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회원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성신의 간증에 의해, 형제들이 ‘성신으로 감동되’ (교리와 성약 68:3)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 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러한 것은 참된 것으

하나님의 영의 인도 하에 진지하게 구하는 자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은 물론이고, 진리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교분을 갖게 될 것이다.



사진 촬영: 론진 론지나 이세

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은 어느 때 경전에 관한 말씀으로 인정 받나?,” *처치 뉴스*, 1954년 7월 31일, 10쪽) 사람은 저마다 진리의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버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잘 따르면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빌라도가 한 질문을 하면서 프란시스 베이컨 경의 철학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컨은 진리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탐구하는 과정 즉 “진리를 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 즉 “진리의 실재함”에 대한 것이요, 세 번째는 믿음 즉 “진리를 향유하는 것” (“진리에 관하여,” *에세이*[연도 모름], 18쪽)이 그에 해당됩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년) 대관장은 수차례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에게, 시간을 내어 방해 받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명상하며, 평가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훌륭한 권고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에 관한 열쇠는 교리와 성약 9편에 잘 나와있습니다. 이 9편에서는 구하는 자가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면, 그것이 옳은 일일 경우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9:8 참조)

많은 사실을 축적하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고 생산적이지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중지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영국의 성직자] 헨리 알포트(1810~1871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사에 자세하고 완벽한 것이 곧 진리가 아니라, 올바른 느낌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진리이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 좀 분명치 않게 말하는 경우가 더 참될 수도 있다. 시편의 작자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136 참조]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하고 참된 진리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하에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심은 물론이고, 진리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참된 교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필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카알라일(1795~1881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진리가 정직하게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관한 구세주의 다음 말씀들 만큼 더 훌륭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 계속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요한복음 18:37)

좀더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가 어느 곳에 있나 알기 위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의식과, 마음과, 생활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 힘쓰고, 사랑과 감사함 속에 그 진리에 따라 용기 있게 생활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진리가 무엇이나”와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여러 번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이다.
2.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명상하고, 탐구하며, 평가하고, 조용히 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구하는 자들은 성신의 동반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
4. 모든 사람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과연 이 말씀이[진리가] 하나님 아들의 것이며 참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냐”(엘머서 34:5)는 중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5. 참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마음과,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패트리샤 에이처 모델

어느 여름 날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적인— 그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가까이 오는 그녀가 무섭기만 했다. 하지만 결국 기회는 왔다. 지금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현관 문 밖으로 나가는데 배는 뒤틀리고, 가슴은 두근두근하는 등, 모든 것이 다 정상이 아니었다.

우리의 증오는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으로 아무런 약이 없이 시작되었다. 내 아들과 그녀의 아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고, 그녀는 이에 관해 얘기를 하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런데 자꾸 그녀가 내게 자식 키우는 법을 강의하려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끼리는 곧 화해를 했으나, 정작 어머니들인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후 나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곧 그녀가 안 보는 데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리를 가도 반대 편 길을 택하는 등, 서로 대면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러한 불화는 거의 2년이나 계속되었다.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웃에 대해 악감정을 품는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마음 안에서 증오심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것은 내 영혼을 잠먹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 필요했고, 나는 많은 회개를 해야 했다.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 놓인 미움의 벽을 허물기 위해 도움을 간구했다. 내게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회가 필요했다.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달려나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불쑥 말을 꺼냈다. “제발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비방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당신을 적으로 여기는 일도 더는 없을 거구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주님의 부드러운 영이 우리 둘을 감싸 주었다. 둘이 서로 포옹하는 순간 그 동안 갖고 있던 나쁜 감정들이 마치 봄눈 녹듯 녹아 버렸다. 우리는 울면서 서로 안아 주었으며, 그러다가는 또 웃었다.

사랑, 기쁨, 그리고 화평이 그처럼 따뜻한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을… 왜 오랜 시간 동안 내 영적인 힘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짓눌렀던 분노와 악 감정의 짐을 그토록 버겁게 지고 다니려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이제 나는 약속을 지켜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이웃들을 멀리 떠나왔으나, 그 여름 날 배운 용서와 사랑에 관한 값진 교훈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



# 나의 두 번째 침례

첸 자 셴이 마이클 제이 베어맨에게 들려준 이야기

사진: 마이클 제이 베어맨 제공

나는 중국에서 나서 자랐고, 그 곳에서 군 복무를 했다. 후일 대만에서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북유럽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 뒤로 나는 열렬한 기독교 지지자 및 교회 지도자로 42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니던 교회에 대해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국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다. 1993년 9월, 말일성도 선교사 두 명이 집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벨슨 자매와 샤오 자매가 몰몬경의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몰몬경 한 권을 주기에 받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났다. 바로 이 “몰몬” 교회에 대한 비난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자매는 내 근심거리를 풀어 주느라고 2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후로 또다시 나를 찾아온 이들은 함께 예배에 참석하자고 권했다. 9월말, 처음으로 룽탄 타오유안에 세들어 있는 교회 건물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나는 이들 역시 성경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모임과 모임 사이에 서둘러 집으로 가서 내 경전을 가져왔다.

그 다음 일요일, 자매 선교사들이 로저 장로와 베어맨 장로라고 하는 두 명의 젊은이를 동반한 채 다시 나를 찾아왔다. 장로들과 함께 토론한 주제 중에는, 요셉 스미스가 어느 교회에 가입할지 기도했을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이들이 요셉에게 나타내셨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우리는 다음 구절을 포함해 관련된 대부분의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었다.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

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19)

이 말씀들이 내 머리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고, 영 또한 아주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성구를 읽다가는 고개를 들고는 “정말 참되네요.”라고 간단히 말했다.

다음으로 장로들은 배도, 교회의 회복과 신권의 권능의 회복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나 이들이 침례를 권했을 때 나는 무척 당황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다시 침례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전 신앙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장로들은 권능 있는 사람에게 침례 받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기도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다. 그러곤 일어서서 갔다. 이들은 내게 알리지도 않고 그날 하루 나를 위해 금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음, 합당한 권능에 의해 침례 받는 것의 중요성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 후에 가진 토론에서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 침례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장로들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무척 기뻐했다. 그날 내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난 제가 침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1993년 11월 14일에 침례 의식을 행하기로 계획했다.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는 것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경험이 되었다. 침례식이 끝난 뒤 나는 장로들에게 내가 받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40년도 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그분 교회의 회원이 되었군요.” □

첸 자 셴의 행복한 침례일(가운데)에, 그의 딸과 복음 선교사인 베어맨 장로(왼쪽)와 로저 장로의 모습도 보인다.



# 아르헨티나의 당면 과제

디앤 워커

사진 촬영: 글쓴이, 주석이 있는 부분 제외

배경 촬영: 네스토르 쿠르벨로

**대**관장단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에서 교회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평범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혹과 책임과 기회가 가장 많은 시대에 태어나도록 예비되었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의롭게 생활해야 할 때이며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교회와 세미나리 공과 만에서, 학교 활동에서, 자신들 집에서 이러한 격려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공항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을 지나가면서 눈이 휘둥그레진다.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성전은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 모습 같아 보인다. 그렇지만 방문객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즉 1986년 헌납된 이후 줄곧 이곳이 아르헨티나의 말일성도들의 수문장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성전은 남녀 노소에 상관없이 교회 회원들에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상징한다.

주변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이따금 토요일 아침에 성전을 찾아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다. 이들이 성전에 함께 모이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살고 있는 경우라 해도 도시가 워낙 커서 성전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스텔라 스테이크 소속 카스텔라 와드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은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리 침례를 받기 위해 매달 한번씩 성전에 오려고 노력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발전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다.

빅토르 고로시토, 17세



카스텔라 와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스텔라 스테이크

“저는 성전을 처음 찾았던 순간을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밤 중에 고속도로를 달려 성전에 도착했는데, 조명을 비롯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영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저는 이 간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 빅토르 고로시토

“성전 의식 참여는 참 아름다운 일이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까요. 그 분들은 저로 인해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 영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 바네사 레이

바네사 레이, 17세



카스텔라 와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스텔라 스테이크

“제가 성전을 처음 찾은 건 지금부터 6개월 전 일이죠. 너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가능하면 자주 와서 대리 침례를 받아야겠어요.” — 엔소 코메르시

엔소 코메르시, 13세



카스텔라 와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스텔라 스테이크

“전 형클리 대관장님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셨을 때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 분 말씀을 들었죠. 당시 받은 그 훌륭한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모임이 끝날 때 대관장님과 모든 회중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후앙 가브리엘 바리스누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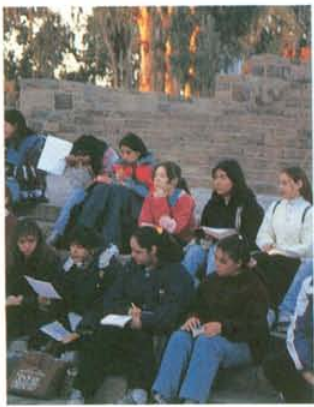
후앙 가브리엘 바리스누에보, 12세



카스텔라 와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스텔라 스테이크

카스텔라 와드 출신의 일부 청년  
청녀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  
이레스 성전 밖에서 포즈를 취하  
고 있다.





멘도사 세미나리 학생들은 이른 아침 모임을 위해 세로 데 라 글로리아에 집합한다.

### 멘도사에서

4개 와드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동트기 전 고요한 어둠 속에 조용히 자신들의 집을 나선다. 쌀쌀한 가을 공기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 속으로 내닫게 한다. 차안은 아직 잠에서 덜 깬 10대 청소년들과 지도자들로 반 정도가 채워져 있다. 2시간은 더 있어야 도시 전체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배달 트럭 몇 대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만이 말일성도 청소년들을 실은 트럭 및 자동차들과 함께 달린다. 청소년들은 도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길 위로해서, 세로 데 라 글로리아(영광의 언덕)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일행이 산 정상에 도착할 때쯤, 동쪽에서 희미한 오렌지색 빛이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햇빛이 빛나면 "영광의 언덕"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동트기 전의 회색 빛 속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기도를 드리면, 학생들은 그날 하루의 복음 공부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야 어둠이 물러가 아름다운 진경이 눈에 들어오고, 볼그스레한 광선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한다. 태양이 오늘 이 산 정상에서의 수업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멋진 풍경들을 밝게 비춰 주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서쪽에선 안데스 산맥의 장엄한 정상이, 동쪽에선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드넓은 평원이 창조주의 영광스런 사업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일반 공과 반과는 많이 다른—아르헨티나 멘도사의 이 청남 청년들은 영의 양식을 공급 받고 앞으로 있을 문제들을 헤쳐 나갈 힘을 얻는다. 더 높이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 청소년들은 다가올 날의 당면 과제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이들은 그렇게 잠시 멈춰서다가는 이내 생활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 소피아 카레니, 16세



멘도사 제이 와드,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테이크

"전 9살 때 침례 받고서는 3년 동안 비활동적이었죠. 교회에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두번 침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미나리를 통해 전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소피아 카레니

### 미리암 멘도사, 17세



고도이 크루즈 서부 와드, 아르헨티나 고도이 크루즈 스테이크

"이따금 학교에 있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친구가 제게 커피를 주더군요. 싫다고 대답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전 그 친구에게 제가 교회 회원이며 제 몸은 성전이라고 말했죠. 제 몸은 제가 돌봐야 되니까요." —미리암 멘도사

스텔라 루세로, 17세



멘도사 제일 워드,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테이크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선 구세주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질 않았죠. 작년에 선교사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전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죠. 전 그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스텔라 루세로

마리아 에우제니아 로시, 15세



고도이 크루즈 서부 워드,  
아르헨티나 고도이 크루즈 스테이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 말씀을 듣기 위해 워드 회원들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여행한 때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버스로 하루 16시간씩 꼬박 이들이 걸렸죠. 예언자께서 말씀하실 때 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뭔가 강한 것을 느꼈죠—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마리아 에우제니아 로시

레안드로 로마쯔쉬, 14세



고도이 크루즈 서부 워드,  
아르헨티나 고도이 크루즈 스테이크

“전 힝클리 대관장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시기 전 날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며 영에 감동되었고, 결국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전 그 분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참됨을 압니다.” —레안드로 로마쯔쉬

에미나 라스텔리, 14세



산 이그나시오 워드,  
아르헨티나 고도이 크루즈 스테이크

“세미나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강건해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요한복음 15:19 참조)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항할 수 있으니까요. 전 올해 이태리어를 배우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세미나리(신학 연구원 중등부) 공부 시간과 겹쳤죠. 이태리어 수업을 듣지 못해 속은 상했지만, 세미나리에서 더 좋은 걸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미나 라스텔리

카렌 누에스, 16세



산 이그나시오 워드,  
아르헨티나 고도이 크루즈 스테이크

“전 제 친구 아리엘을 6년 전에 만났답니다. 그에게 맨 먼저 전 교회 회원이라고 말했죠. 아리엘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금은 저와 교회와 세미나리에 같이 다닙니다. 전 세미나리가 경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됨을 압니다.” —카렌 누에스

안드레스 나바로, 18세



마입 데 쿠요 워드,  
아르헨티나 마입 데 쿠요 스테이크

“중학교 시절, 친구들 몇이 제가 교회 회원이라고 질 놀린 적이 있었죠. 제 간증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수줍음이 앞섰습니다. 이에 대해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한 다음, 전 그들에게 간증을 전할 수 있었죠. 후일 한 친구가 제게 교회에 관해 질문을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저와 교회에 대해 더 많은 존경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안드레스 나바로

**살타에서**

아르헨티나 서북단, 볼리비아와의 국경 가까이는 살타 시가 있다 아름답지만 약간 멀리 있는 이 도시에선, 전형적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는 이곳 생활이 늘 쉽지만은 않다. 상당수의 새 회원들은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어야 했고, 친구들이나 급우들에게 왜 그런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했다. 일부 회원들은 비회원 부모와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이유를 이해시키느라고 무척 애쓰고 있다.

몇 년 전 살타에 있는 말일성도 예배당이 불타버렸을 때, 성도들은 신앙과 소망의 영으로 이에 대응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지 18개월만에 아름다운 새 예배당이 본래 자리에 우뚝 섰다. 수많은 땀과 희생이 이뤄낸 결과였다. 살타의 상당수 말일성도 청소년들도 "건물 신축"에 대해 이에 버금가는 신앙과 소망과 열정을 보인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신축을 하죠?"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선 새벽 5시에 일어나 세미나리에 가고, 매일 경전을 읽으며, 친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용기를 갖고 간증을 하는 것— 이 모두가 교회의 장래를 신축하는 요소들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넬리다 이바나 곤잘레스, 15세**



올라버리아 와드,  
아르헨티나 살타 서 스테이크

"전 열 두살이 되어서야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 후부터 간증이 부쩍 커졌어요. 전 세미나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이 저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전 세미나리에서 쓰는 공책을 학교까지 가져갑니다. 친구들에게 보여 주면서 교회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죠." — 나탈리아 버지니아 차일레

"세미나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간증이 그리 강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가족을 축복하고 저희를 강화시킴을 알게 되었죠." — 넬리다 이바나 곤잘레스

"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 늘 친구들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이 참된 교회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죠. 전 청소년들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해 선교사들이 가르치게 해주었고, 그들을 위해 만날 약속을 정해 주었습니다." — 안드레아 로레나 베르넬

**파올라 라미나 마르티네즈, 16세**



트레스 세리토스 와드,  
아르헨티나 살타 스테이크

"침례 받았을 당시엔 지금만큼 복음을 알지 못했었죠. 교회에서도 한번도 간증한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간증하고 싶습니다." — 파올라 라미나 마르티네즈

"언젠가 한번은 세미나리에 더 많은 학생들이 오길 기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후 2명이 더 왔죠. 저희들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에바 아날리아 아르세

**나탈리아 버지니아 차일레, 14세**



올라버리아 와드,  
아르헨티나 살타 서 스테이크

**안드레아 로레나 베르넬, 14세**



올라버리아 와드,  
아르헨티나 살타 서 스테이크

**에바 아날리아 아르세, 17세**



트레스 세리토스 와드,  
아르헨티나 살타 스테이크





올라버리아 와드,

아르헨티나 살타 서 스테이크

“친구가 제게 ‘왜 너는 나쁜 말을 안 하나?’, ‘커피는 뭇 때문에 안 먹지?’ 라고 질문을 하면 전 제가 무엇을 믿는질 말해 주죠. 또한 그들에게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는 법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 마리아 사베드라

“침례 받은지 꼭 2년이 됐습니다. 침례탕을 나오는데 누군가가 제 곁에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 호세 아르날도 차일레

호세 아르날도 차일레, 17세



올라버리아 와드,

아르헨티나 살타 서 스테이크

### 모범을 보임

남아메리카 남 지역 회장을 지낸 존 비 디슨 장로는 몇 년 전 있었던 청소년들의 지역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다. “아르헨티나 남단의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1.25킬로미터 길이의 해변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150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흰 페인트와 양동이와 붓으로 아주 멋진 볼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역 라디오 방송이 현장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청소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약간의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죠.’ 이 내용은 전체 라디오 방송과 지역 사회의 신문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잊은 채 남에게 봉사했습니다.” 라고 디슨 장로는 전한다. “만일— 남아메리카 남 지역의 약 160개 스테이크에서 같은 날을 잡아 자신들의 소속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모범을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62개 스테이크 산하 청소년들은 언론 보도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계속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복음을 공부하고, 남을 도우며, 간증을 키워가면서, 자신들의 친구 및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그러한 노력에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살타의 한 세미나리 새벽반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 교회 봉사

“교회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어느 곳에 부름 받든 봉사하십시오. 요청 받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직분은 여러분의 역량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이 위대한 조직 내의 여러 직분에서 봉사해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그 나름대로 보상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이기심 없는 헌신과 변함없는 충실함과 신앙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완전해 이르기 전 여러 직분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소한 것 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 교회에서의 부름은 사소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름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부름은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교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교회 교리에 관한 지식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게 하십시오. 교회의 영원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깊어지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희생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희생과 봉사가 평생 동안 배당금이 따르는 일종의 투자와 같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의 엄청난 보고입니다. 이를 받아들여 굳게 붙잡으십시오.” (영적인 모임, 유타 주 로간, 신학 연구원 대학부, 1997년 10월 21일)

## 생각할 시간을 내십시오

“우리의 삶은 극도로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

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일시적인 목표들을 덧없이 추구하느라고 자신을 쇠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 보고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나이 때의 제 아버님이 생각합니다. 그 분은 마당에 바위 벽이 있는 집에 사셨습니다. 그것은 나지막한 벽이었는데, 아버님은 날씨가 따뜻할 때면 그 벽에 올라가 앉곤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하거나 명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웅변가이자 글도 잘 쓰셨기 때문에, 뭔가가 떠오르면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말씀하시려는 듯했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독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도 발전을 멈추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삶이란 생각 속에서 전개되는 위대한 모험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모임, 유타 주 로간, 신학 연구원 대학부, 1997년 10월 21일)

##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분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유형과 다소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살아 계신 아버지의 부활하신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리와 종교적 관행은 하나의 기본적인 교리적 근거에서 비롯됩니다. 즉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 개조의 제일 항목이며,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이에서 비롯됩니다.' (종교 신문 기자 협회 회원들과의 모임,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1997년 9월 14일)

## 긍휼히 여김

“구세주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7)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증오가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악감정도 있습니다. 이기심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함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긍휼함이라는 성품이 있어서, 소위 자기 발로 설 수 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연약한 팔을 들어 올려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긍휼함과 사랑과 친절함의 정신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12) 우리는 삶 가운데 반드시 긍휼함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지역 대회,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1997년 8월 10일)

##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함

“이 교회에서는 합당하게 생활할 경우 모든 형제님들이 성신권에 성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임과 더불어 큰 책임이 주어 집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계신 형제님들은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내에게 합당한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이 이생에서 갖게 될 최고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절대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비하해서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늘 격려하고 지지하십시오. 모든 자매님들로 하여금 ‘저는 남편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분은 절 사랑하고 전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게 합시다. 여러분은 신권 소유자로서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성별된 기름을 부으면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와 같은 놀라운 권능에 합당하도록 죄를 추방하고 계십니까? 신권 소유자로서 교회 행정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십니까? 어떤 직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게 되든지 잘 봉사하십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권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정결케 유지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 (교리와 성약 1:20)도록 옳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회원들과의 모임, 통가 바바우, 1997년 10월 15일) □



# “살인하지 말찌니라”

아더 알 배시트

배경: 낸시 블레이저, 노여움이 없는 풍경  
그림: 테드 헤닝거, 율법을 제정한 모세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을 금하고 있다.  
이 계명은 가장 낮은  
표준이다. 구세주의

모범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 즉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성스런 언약에 보존되었던 귀중품 가운데에는 십계명이 쓰여진 두 개의 석판이 있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다. 여섯 번째 계명 “(너희는) 살인하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13)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주님이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예로부터 두 번째 석판의 첫 번째 계명으로 생각되어 왔다.

인간들 가운데 살인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적지만 이 여섯 번째 율법을 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받는 해악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다. 살인을 정략적 도구나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회에서는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시대에도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현대의 시내 산에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같은 음성으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찌니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세계적인 문제

제1차 세계 대전은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일컬어졌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공포는 문명국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대량 학살은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 그리고 동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계속 일어

나고 있다.

여섯 번째 계명은 크고 작은 나라를 불문하고 살인광이나 집단 살인마들에 의해서도 범해지고 있다. 갱들간의 살인이 거의 유행 병처럼 번져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칼부림과 총격전 등 무분별한 폭력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같은 잔인 무도한 살인 행위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도시와 부락과 이웃집이 폭력으로 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주민들에게 불러오기도 한다.

나는 아이다호 동남부의 소도시에서 성장하면서 가졌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때 나는 저녁에 영화 관람이나 학교 활동을 마치고 신변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혼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일은 일부 소도시에서는 아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이같은 평화로운 경험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다.

### 제일 큰 중죄

속죄는 성신을 거스르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마태복음 12:31 참조) 그러나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범법 중에서 가장 가증스런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한 사람은 그가 죽인 사람의 지상 생활을 종식 시킴으로써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살인자는 그가 죽인 사람에게서 필멸의 지상 생활 경험이라는 귀중한 은사를 빼앗음으로써 스스로를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공공연히 대적하는 위치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살인한 사람은 자신을 적어도 이 지상 생활 동안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또는 보상해 줄 수 없는 처지로 몰아넣고 만다. 살인이 이토록 중죄이기 때문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살인자는 "호리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184)고 말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큰 도덕적 문제의 대부분은 현대의 계시 "너는...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6)고 주님께서 이 계명에 첨가하신 현대 계시를 고려해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여섯 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오늘날의 신문 머릿기사나 방송들은 자살, 유산(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근친 상간이나 간음에 관련된 상태 혹은 합법적인 의료진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결함이 있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분명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외적 경우일지라도 옳은 결정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성약",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97쪽)), 안락사, 유독성 공해, 고의로 에이즈를 전염시키기 등, 살인과 비슷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살인자는, 가인이 그러했듯이, 그가 죽인 사람에게서 필멸의 지상 생활 경험이라는 귀중한 은사를 빼앗음으로써 스스로를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공공연히 대적하는 위치에 처하게 만든다.

### 끊임없이 경계함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폭력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탐욕과 자기중심주의를 끊임없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질은 자주 폭력을 불러오는 근본이 된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큰 폭력, 나아가서는 곧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다.(마태복음 5:21~22 참조) 이기주의와 자만심이 분노에 찬 폭력 행위의 근본인 것이다.

분노의 감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때, 또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 주지 않을 때이다. 우리가 권위나 힘을 지닌 위치에 있을 때 분노는 불의하게 지배하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21:34~46 참조) 한편, 우리가 힘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에는 분노는 대개 끓어오르는 증오심과 원한으로 나타나 종종 무죄한 제3자에게 화풀이하는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베냐민 왕은 분명히 가족간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언쟁하고 다투어 악마를 섬기지 않게 하라고 가르쳤다.(모사이야서 4:14~15 참조)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결한 감정을 조장하는 상황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아무도 자신을 돌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생의 어두운 면에, 특히 폭력과 죽음에 병적일 정도로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살인 행위와 때로는 느린 동작으로 -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것을 본다. 스포츠나 그 밖의 다른 경쟁적인 시합 중에 벌어진 폭력 행위에 관중들이 갈채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생생한 폭력 행위 묘사는 그 자체가 관중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시온의 진영과 함께 행군한 형제들에게 보여 준 교훈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계시를 통해서 조직된 이 집단은 미주리에서 무장한 채로 교회 회원들을 박해하는 무리들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릴 태세가 되어 있었다. 교회 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신의 생명을 버리거나 또는 적의 생명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예언자는 그들에게 진중에서 발견한 세 마리의 방울뱀을 죽이는 일조차 못하게 금하였다.

요셉은 이렇게 지시했다. "그것들을 해치지 말고 내버려두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뱀과 똑같은 독기를 가지고 그것들과 싸운다면, 뱀들이 어찌 독액을 뽑지 않겠오? 사람은 짐승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독기를 내지 않고 동물 살생을 그친다면,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거할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안전하게 뱀과 놀 수 있을 것이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71쪽)

만일 사회가 어떤 동물이든 그 생명의 신성함을 이와 같이 존중하게 된다면,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의 수가 틀림없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 우리는 폭력의 세계에서 살고 있음

그러면 폭력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여섯 번째 계명의 범법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의 원리에 결부시켜 생각할 때, 몇 가지 해답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폭력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짐.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알므로써 우리는 우리가 처한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므로 아들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이사야 61:1~2)고쳐 주시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출애굽기 34:7)않으신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매우 자유롭고, 그의 자비와 축복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 한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하고,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더욱 무서우며 모든 그릇된 것을 가려내시는 데 더욱 예리하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1쪽)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한 위의 글의 앞부분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심을 증대시켜 준다. 우리가 깊은 고뇌와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특히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을 잃을 처지에 놓일 때, 우리는 그분의 평안을 받을 수 있다.(요한복음 14:27 참조) 주님은 또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두려워 말고, 영육의 생명을 염려하라고 권고하셨다.(교리와 성약 101:36~37)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마태복음 5:9)이 될 것을 요청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형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경고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위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을 알고 계신다. 때가 이르면 주님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폭력의 세계 속에서 희망을 가짐.** 말일 성도들은 세계의 종말론자나 비관론자의 부류에 속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은 좋지 않으며 신뢰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자녀들의 이러한 생각에 균형 잡힌 시각을 주기 위해 특히 가족 토론 때, 우리는 지금 평화의 복음 전파 사업을 비롯해서 세계 사상 유례가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찬 말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지는 비관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했음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과 화락과 화평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갈라디아서 5:22~23 참조)

**폭력의 세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폭력의 영향이 우리 자신의 생활과 가정에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불확실한 설과 추측을 퍼뜨려 다른 사람과 그의 가정에 아픔을 가져다주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 자신과 가정으로부터 폭력적인 말을 몰아내야 한다. 셋째로는 가능한 경우, 적당한 기회를 찾아 다른 사람들의 고통, 특히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과오에 빠질 때, 우리는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매도하기 쉽다. 그러나 인간들의 마음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자살에 관한 기사에서,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요인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하였다.

“나는 죄의 심판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언제나 틀에 박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인한 사람은 상황 여하를 불문하고 똑같이 정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민법은 정상 참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역시 의도와 정황에 있어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시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자살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과 모르고 있는 일”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18쪽)

벨라드 장로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살 행위에는 정신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요인이 한 몫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קי 장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 자신의 행동에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여 정죄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 맡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교리, 제2판(1966년), 771쪽)

유산이나 신체적 학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온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주님께 심판을 맡기며, 최선을 다해 사랑 안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기도는 “남의 짐을 나누어 가법게 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모사이야서 18:8~9)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로부터 은퇴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의 생과 생의 목적을 되찾아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생명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청소년 시절부터 나는 종종 가능한 의미를 철저히 연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위안이나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펼쳐 볼 수 있는 특정한 성구절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표준 경전이 담고 있는 강한 의미가 너무 다양해서 나는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수 년 동안 내가 심사 숙고 할 때마다 한 성구가 되풀이해서 내게 떠오르곤 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



복음 10:10)

나에게는 위의 일절이 다음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엘마서 40:1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이 밖에도 포함될 수 있는 구절은 많이 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구세주의 사명과 동의어로 느껴진다. 마음으로 구세주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그 접촉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받았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다음의 두 어구를 결합시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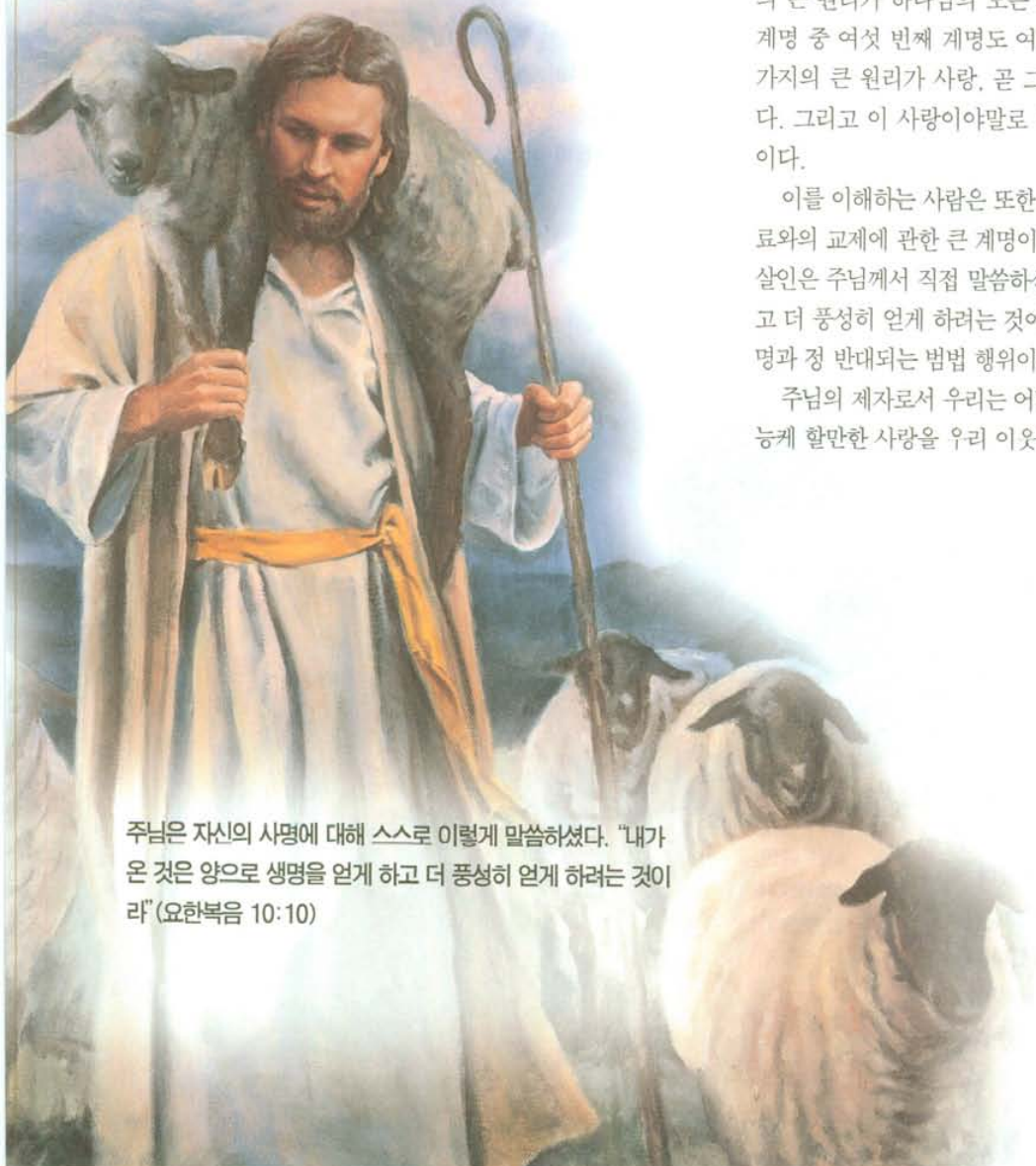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요컨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의 큰 원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 중 여섯 번째 계명도 여기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상 두 가지의 큰 원리가 사랑,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요체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또한,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왜 이웃 동료와의 교제에 관한 큰 계명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인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는 주님의 사명과 정 반대되는 범법 행위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같은 풍성한 생명을 가늠게 활만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

주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티파니 로키어

**언**제나 여름 방학은 영적인 성장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 되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고 학교 수업에서 오는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을 좀더듬뿍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좀 달랐다. 웬지 텅빈 느낌 같은 것에 빠져 도무지 정신이 없었다. 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전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과 대화하신다는 말씀을 들어 왔었다. 그래서 나는 손에 물몬경을 들고 침대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전 옳은 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훌륭한 선택을 함으로써, 성신이 늘 저와 함께 할만큼 제가 합당하다고 확인되도록 애쓰나이다. 그런데도 이 허전함이 절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알게 해주소서."

계속해서 경전의 엘마서 37장을 폈다. 내 기도 에 대한 응답이 39절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 엘마는 리아호나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보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러한 기적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저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보였으며, 저들이 신앙과 근면을 잃으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그쳐 어디로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더라." (엘마서 37:39, 41)

어떤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화를 내시지 않았다. 그분은 내 마음의 소망이 선하고 순수함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영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간증을 강하게 키워 나가는 일에 좀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계으

름 때문에 나는 "[나의 여행]"에 진전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경전 공부가 호지부지 되어 버렸지만, 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약해서 말하면, 경전은 우리에게 있어 현대의 리아호나인 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전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

나는 나만의  
리아호나를  
발견했다.

#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고 거기 거할 사 람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 치고 쉬셨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곱 번째 날을 안식의 날로 거룩하게 하셨 다. (모세서 3:3; 아브라함서 5:2~3 참 조) 그때로부터 그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았으며 이는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거 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영원한 표시가 되 었다. (출애굽기 31:12~17 참조)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

### 우리는 축복 받음

안식일은 휴식을 취하며 새롭게 하는 날 로 영을 강화시키는 시간이다. 스펜서 더블 류 킴벌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 고, 명상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수면을 취 하며, 건전한 책을 읽고 그날 갖는 모든 교 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용서가 낳는 기적, 94쪽)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풍 성한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한 축복들 가운 데는 신앙의 증진과 평안과 사랑 같은 영 적인 축복들이 있다.

다른 종류의 축복들도 또한 올 수 있 다. 페루의 리마에 살고 있는 미망인인 테 레사 가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살고 있는데 일요일이 가장 바쁜 날 중의 하나 였다.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우면서 그녀가 걱정할 것은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이었다. 결국, 어느 주말에 그녀는 그날이 새해 전날인줄 모르고 일년 중 가 장 매상이 많은 그날에 문을 닫기로 동의 했다. 연 이틀 동안 장사를 하지 않는 것

으로 맞게 될 심한 재정 상의 손해가 예상 되었지만 약속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녀 는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갔다. 화요일, 장사가 끝날 즈음에 그녀는 그날이 가게 를 차린 이래 그 어느 날보다 가장 장사가 잘된 날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 는 주일날에 결코 장사를 한 일이 없었으 며 매상도 점점 불어 나갔다. (성도의 빛, “안데스 산맥에서의 개척”, 1997년 5월호 45쪽 참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모두 가 가이 자매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축복 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 을 거룩하게 지키므로써 이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축 복이 주어진다.

## 우리의 성약을 기억하고

### 새롭게 함

안식일의 축복 중 하나는 성찬에 참여 하는 특권이다. 브리감 영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우리가 주님과 천사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 고 있음을 증거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 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 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 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 열망한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는 것입니 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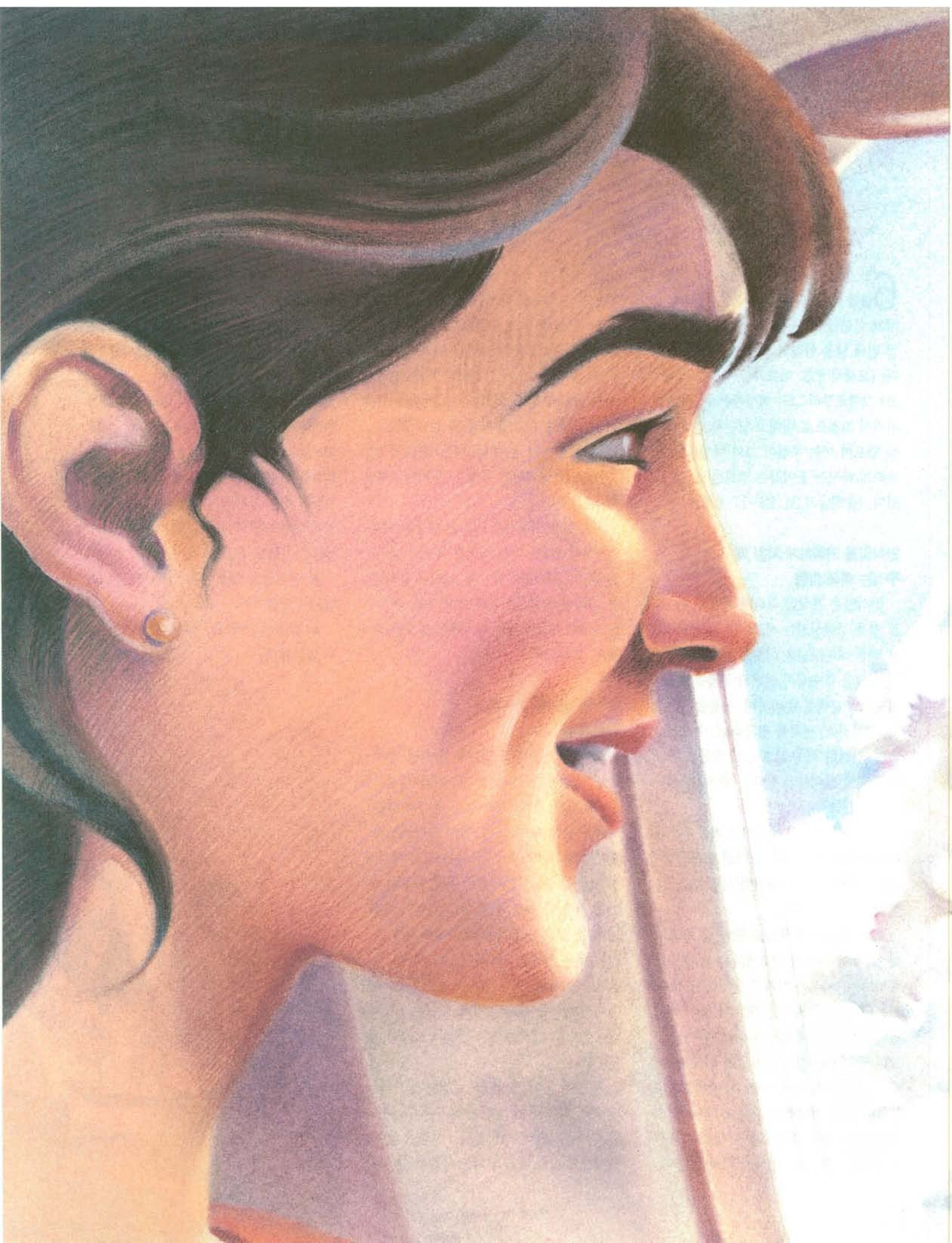
전 본부 청녀 회장단의 보좌였던 보니 디 파킨 자매는 이 신성한 의식이 주는 정 화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성찬을 들 때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예롭고 정확 하게 그러한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가 처음 침례 받았을 때처럼 신선하고 순결한 느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77쪽)

안식일은 현재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영과 뜻에 적합한 안식일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의 삶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안식 일에 대한 대관장단의 말씀”, 엔사인, 1993년 1월호, 80쪽)

- 안식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 법은 무엇인가?
-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





# 구름 위에서

클라우디아 아파레시다 아시스 아우구스토

그림: 달린 마쉬

**브**라질에 있는 그 공항으로 들어가 상기된 기분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교 사업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당시 나는 비행기편으로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고향으로 귀환하는 중이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여행!

공항 창문 밖으로 먹구름과 가는 비가 뿌리는 것을 보았다. 먹구름 속에서라도 어딘가 환하게 뚫린 구멍이 있겠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았다. 푸른 하늘과 화창한 날씨를 기대했다. 그래야 여러 도시들과 산과 숲과 기타 비행기를 타야만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내게 그랬었다. “비행기를 타면, 모든 게 아주 작아 보이죠.” 라고. 나는 창공을 높이 나는 새처럼 사물을 느끼거나 보고 싶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나는 열심히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구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는 더 세차게 퍼붓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실망에 찬 한숨을 토해냈다.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니... 처음 타보는 비행기 여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말인가! 나는 비행기 창에서 시선을 돌리

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가 구름을 벗어나니까, 갑자기 태양 빛이 창을 뚫고 환하게 들어왔다. 시선이 쓸렸다. 창 밖을 보니, 푸른 하늘이 너무 넓게 펼쳐 있어서 눈을 뜨고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비행기 아래로 있는 구름은 좀처럼 보기 힘든 하얀 먼 모포 같았다. 얼른 창 밖으로 뛰어내려서 그 위에 올라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는 두 시간 동안 내 주변에 펼쳐지는 경이의 세계를 응시했다. 시선을 잠시 교란시켰던 두터운 구름과 폭풍우 위에 그처럼 아름다운 광경과 빛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마침내 비행기는 구름 아래로 하강해 다시 회색 빛 하늘로 들어갔고, 나는 그 아래 폭풍우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머니를 잃는 고통이나 외로움 같은 인생의 모진 폭풍우를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폭풍우에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며, 구름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 □

# 미소지어야 할 이유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철심인 회장단

**이**제부터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웃으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웃되,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미소지으십시오. 제가 추측하기에,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초청장을 받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자세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미소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는 일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친성적으로 행복한 분들의 입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 중에는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고 크게는 아니지만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전혀 웃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일 행복하지 않아서 미소를 짓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분석을 해보십시오. 도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곤경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는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대할 때마다 메리온 디 행스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사업차 잠시 비행기로 출장을 떠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섯 살 난 아들과 함께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 안왔으면 했었습니다. 힘든 여행이 었기 때문입니다.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반복되었고 비행기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만만치가 않았습다. 승객 중에는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는 눈치로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아들은 온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있

었습니다. 이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분들이 꼬마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저러는 거예요?’(“채널을 바꿈.” *엔사인*, 1990년 11월호, 38쪽)

주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몇 번이나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혹은 “크게 즐거워하라”는 등의 명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행복은 하나의 계명이지 단순한 제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78:17~19, 31:3, 127:3 참조)

현대는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경이로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축복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풍요한 가족들은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선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것들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 크게 감사드려야 하는 것 말고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특권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로써 복음의 빛이 우리를 마음과 영과 정신에 임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일에 압도되어 감사를 느끼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힘든 일에 부딪치게 되고, 이 따금 그것이 너무 버겁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여러분은 후일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교훈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10대 청소년 시절에 겪은 시련들이 생각합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무척이나 가난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의 그 분으로선, 대다수 친구 집에는 있는 욕실이 자신의 집에는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분은 돼지를 키웠는데, 그 때문에 고등학교 급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



다. 또한 지독한 여드름으로 인해 통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리다가 사회 생활을 할 수나 있을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체육에, 특히 농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대학 신입생으로서 팀에서 뛰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급 학년에 가면서 기량 문제로 그토록 사랑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팀과도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후일 그 분은 이에 대해 "저는 학문을 하는 쪽으로 돌렸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분께 정치, 대학, 교육계에서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은 주님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현재 혹은 앞으로 그 어느 때든, 실망과 좌절을 겪고 계시다면—무슨 이유로든—여기 아주 실질적인 제안이 하나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빈 종이 한 장을 꺼내, 거기다 임의로 여러분이 가장 감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적으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순서에 상관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축복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 기록하십시오.

다 적었으면 또 다른 종이에다, 우선 순위대로 그 축복을 나열해 적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식으로 쓰십시오.

제 경우엔, 돈으로 살 수 있는 축복에 앞서서

나열해야 할 축복이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축복은 손으로도 그 값어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간증, 가족 등과 같은 축복은 이들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가까이 바칠 수 있는 축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모든 은사 가운데 으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일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또한 교리와 성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어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교리와 성약 34:1, 3)

아버지는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오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만큼 크게 감사드려야 할 사실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 명부에다 첨가하십시오. 그런 다음, 미소짓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 날, 그 명부를 꺼내 이를 읽고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 깨달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미소를 지으며 힘을 내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일은 이보다 더 쉽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







1. My Savior's love  
2. My testimony  
3. A friend like Julie  
4. Mom and Dad  
5. Roses in the yard  
6. good health  
7. Freedom



# 내 손으로 신권을 행사함

쥘리 레이

그림: 로버트 티 배릿

1983년, 스페인의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다. 막사는 여느 때보다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스페인 육군에서 1년간 복무하던 중 하루 휴가를 받기 때문에 나는 그날이 오기를 몹시 고대하고 있었다. 나는 복장에 신경을 많이 썼다. 복장에 흠이 있으면 검사에 통과되지 않고, 그러면 휴가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군용 버스를 타고 부르고스 시로 가서 친구 리카도를 만나 그와 함께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다.

복장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는 곧 리카도를 만났다. 리카도는 부르고스에서 자가용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우리 두 사람의 친구인 마리 카르멘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내가 마리 카르멘을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나의 출신지 갈리시아(스페인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였다. 마리 카르멘을 보고 나는 기뻐했다. 우리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그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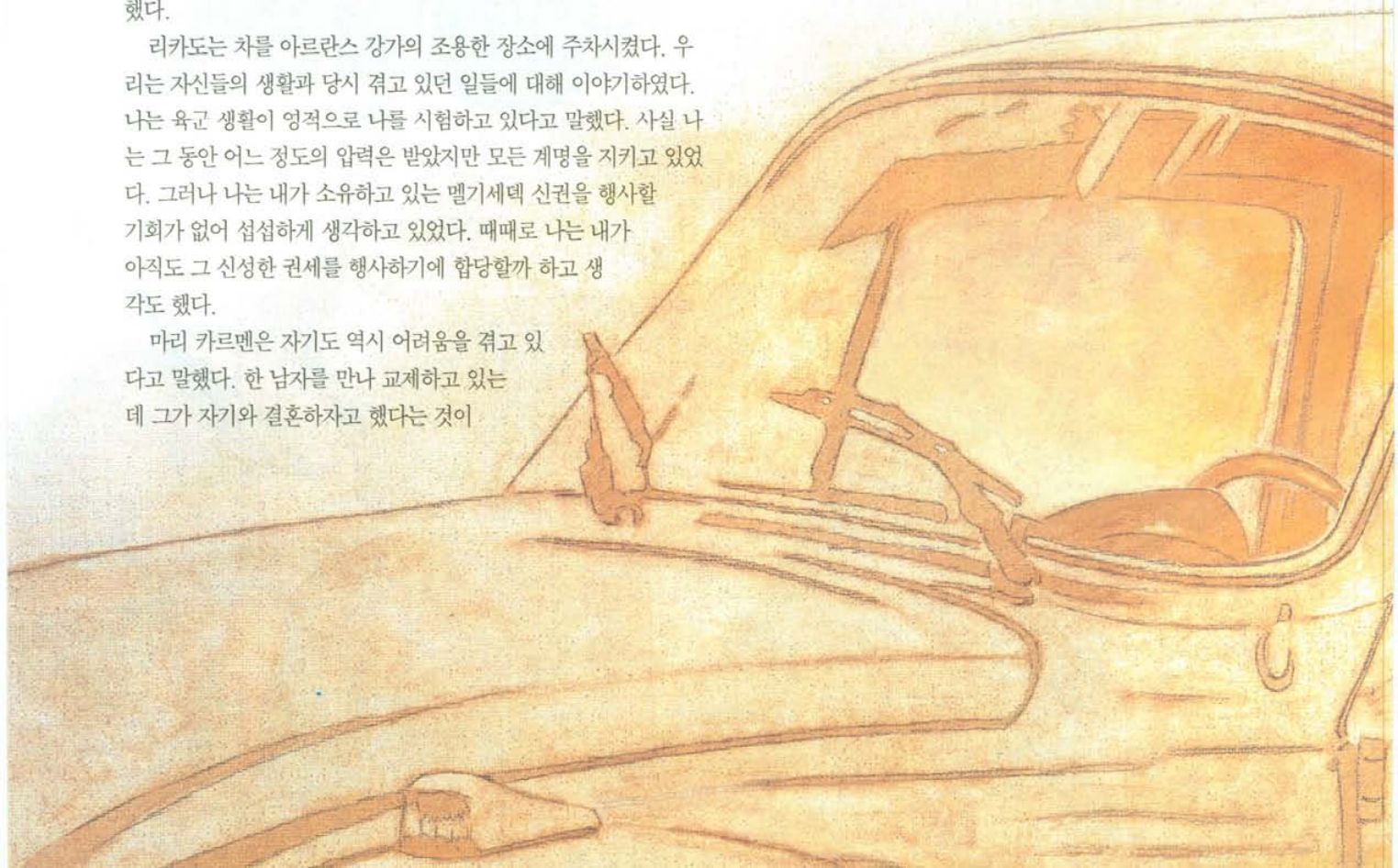
리카도는 차를 아르란스 강가의 조용한 장소에 주차시켰다. 우리는 자신들의 생활과 당시 겪고 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는 육군 생활이 영적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압력은 받았지만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멜기세덱 신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아직도 그 신성한 권세를 행사하기에 합당할까 하고 생각도 했다.

마리 카르멘은 자기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남자를 만나 교제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와 결혼하자고 했다는 것이

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온통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이 끝날 때가 다가오자 마리 카르멘은 나에게 특별한 힘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신권의 축복을 자기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요청을 듣고 놀랐다. 또한 불안을 느꼈다. 사실 나는 그녀에게 축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요청하므로 나는 해보겠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차로 돌아갔다. 마리 카르멘은 앞에 앉고 리카도와 나는 뒤에 앉았다. 나는 먼저 리카도에게 성신이 나의 말에 영감을 주고 나의 손에 신권의 권세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카도가 기도하자 나는 즉시 평안을 느낄 수 있었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우리가 조용한 장소에 있으며 우리를 지켜보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리 카르멘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위안과 격려의 말이 내 입술에서 풍성하게 흘러 나왔다. 그 후 나는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정확히 떠올리려 했지만 도저히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기도를 끝냈을 때 나의 마음은 감격해 있었고 마리 카르멘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마리 카르멘은 내가 기도한 말은 정확히 자기가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혼에 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리카도는 재빨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몰았고, 나를 정시에 버스 정류소에 데려다 줄 수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었고 지저분한 군용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환경은 딴 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

은 나에게 찾아온 느낌, 곧

주님은 신권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나를 압도하는 듯한 평안의 느낌이 다시 나의 영혼 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로부터 7, 8개월쯤 후, 나의 친구 리카도가 결혼했다. 내가 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마드리드로 갔을 때, 마리 카르멘도 역시 그녀의 남편 페르난도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마리 카르멘은 최근에 결혼하였고 페르난도는 마리 카르멘이 전에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페르난도는 나의 손을 꼭 쥐고 나의 눈을 들여다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나의 처 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마리 카르멘과 페르난도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특권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



#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용통성과 창의력, 그리고 결심은 우리가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켈린 릭스 애덤스

어머니는 나의 성장기 대부분을 병으로 지내셨다. 내가 열 다섯 살쯤 되었을 때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어 집 밖 출입을 거의 못하셨다. 그 동안 많은 워드 회원들이 다녀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담당 방문 교사들만큼 자주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 콜린 구드윈 자매님은 일요일마다 교회 모임에서 있었던 말씀과 공과 내용을 기록해서 방문하여 어머니께 들려주셨다. 그러는 사이 마리안 유방크 자매님은 어머니의 통통 부어 올라 아픈 다리와 발을 안마해 주었다.

이 두 자매님은 이 일을 한두 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계속 하였다. 이 자매님들은 두 분 다 직장에 다녔으며 가정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머니의 방문 교사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분들은 자신의 임무 이상의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 어머니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고, 딸인 나에게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유타 웨스트 조던 프레어리 스테이크, 프레어리 제5와드, 트래시 라이트 자매

축구 선수였던 웨인은 몸집이 크고 건장한 체구의 형제였으며, 활달하고 남을 돕고 보살피는 정신이 강한 장로였다. 한편, 돈은 조용하면서 영적인 힘을 지닌, 모범 회원으로 웨인의 훌륭한 동반자였다.

그들이 처음 가정 복음 교사로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즉시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당시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었던 나는 그때까지 교회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희의를 품고 있었고 워드 회원들의 동기에 대해서 자주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두 사람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여기에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단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감독이 그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확인하러 방문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우리를 방문한 것은 그들이 현대의 예언자들을 믿고 있으며, 신권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기회로서 가정 복음 교육의 부름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유타 컨스 남 스테이크, 컨스 제34와드, 데니스 피콕



사진 촬영: 마셜 반 폰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많은 회원들은 이러한 영감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영적, 정서적 인 힘과 온정의 손길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지만, "남의 집을 나누어 가깝게 하" (모사이사서 18:8)는 책임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때로, 동반자들이 같이 만나 지명된 가족들을 방문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다니라는, 신권에 관한 계시에 의해 정해진 본을 따라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이러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리와 성약 20:47, 53, 42:6 참조) 또 이 보다 더 어려운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교사 두 사람의 방문 일정을 방문을 받는 사람의 일정에 맞추는 일이다. 때로는 방문할 가족의 수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때로는 방문하는 집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거리가 의욕을 잃게 할 정도로 막대한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들이 당면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을 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걸림 돌들과 그 밖의

어려움은 회원들이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주는 이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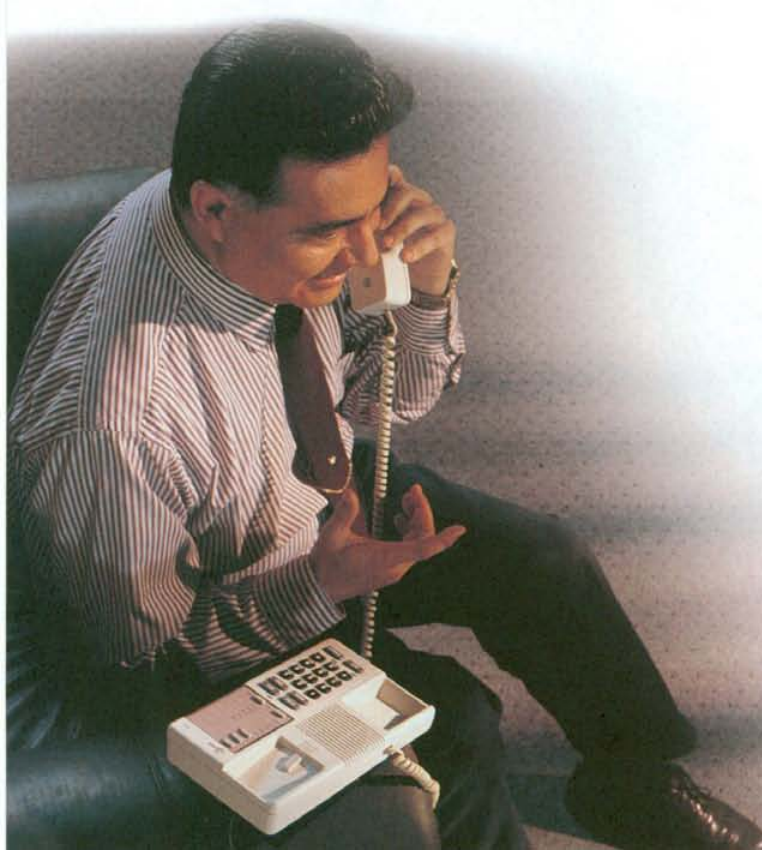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가정 복음 교사들과 방문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다음의 제언들과 해결책들이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제언들은 회원들이 "가르치며...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려고 노력할 때 (교리와 성약 20:42, 47) 주요 요소인 융통성과 창의력, 그리고 실행 결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되는 원리들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 세계 어디에서 봉사하던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 방문 약속 일자를 확정함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는 방문 약속 일정을 짜는 일이다. 뉴저시 체리 힐 스테이크 부장 버트 램 시 윌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회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개인들은 방문 약속 시간이 첫째 주 일요일 오후, 아니면, 두 번째 주 수요일 저녁으로 알고 있지요."

플로리다 코코아 스테이크의 팜 베이 제1와드에 속한 방문 교사 캐스린 버저 자매도 같은 의견이다. "우리가 방문해야 할 자매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떨어져 살고 있는 관계로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은 중요하지요. 모든 자매들이 그걸 좋아해요. 자매님들은 이 첫째 주 화요일 오전 방문을 기다리지요."

가정 복음 교사들과 방문 교사들은 자기들이 방문할 회원들에게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되고 싶다는 뜻을 진지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그러한 뜻은 일정한 약속 일자를 정하든가 방문하는 사람과 방문을 받는 사람 모두가 편리한 방문 시기를 두 개나 세 개를 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방문이 불가능한 날짜들을 유의해야 한다. 방문 시기 가능성에 대해 토론할 때에는 방문 받는 쪽의 가족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이때 융통성과 타협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확정된 약속 날짜를 안전하게 잡아 놓으면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놀라우리만큼 감소될 수 있다.



# 주님의 도구

## 특별한 경우에는 융통성으로 대처함

대다수의 지역은 방문 책임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활동 회원들의 수보다 방문을 받아야 할 개인이나 가족의 수가 더 많다. 테네시 차타누가 스테이크의 포트 페인 지부에는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는 지부장 로만 릴리를 포함하여 세 명밖에 없다. 이 세 사람이 마흔 여덟 가족에 대한 가정 복음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통 적어도 마흔 다섯 가족을 방문한다.

릴리 지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매월 2회 토요일을 이용하여 가정 복음 교육을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 부인과 함께 다니지요. 그때 우리는 방문 교육도 합니다.” 어떤 가족에 특별히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감독/지부장의 승인 하에 부부의 방문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방문은 가정 복음 교육 방문으로, 동시에 방문 교육 방문으로 보고할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 지침서(1990년), 5쪽 참조)

릴리 지부장은 또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돌아옵니다. 토요일에 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다른 날 오후 저녁 시간에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교회 모임 전후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와드의 구역 범위는 약 115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의 책임과 기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트 페인 지부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부부가 함께 가정 복음 교사로서 동시에 방문 교사로서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이다호 카레이 스테이크에는 모든 사람을 방문할 만한 활동 회원들이 없다. 신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회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영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그들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마이클 쉐들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해마다 우리는 와드 지도자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채평가를 하고, 가정 복음 교사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영감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모든 회원들이 방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은 많은 가족을 다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영의 도움으로 방문 필요성이 가장 큰 가족부터 방문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보고한다. 방문 교육에만 해당하

수년에 걸쳐 교회 대관장단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1995년-현재, 교회 대관장

“교사의 의무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교리와 성약 20:53)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 다음 두 가지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름에 관련된 책임을 수행할 도전, 둘째는 자신의 활동, 특히 우리들 가운데 활동이 저조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얻는 흡족함입니다. 저는 이들 교사들이 지시를 받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 방황하는 탕자들을 우리로 데리고 오기 위한 일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에 응하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주님의 교회와 왕국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돌아오도록 이끄는 데 주님의 도구가 됨으로써 오는 감미롭고 놀라운 느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이 회복된 복음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알았다가 어떤 이유로 떠나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치기를 간청 드립니다.

“모든 가정 복음 교사들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이 복음의 원리에 더욱 충실하게 살도록 가르치며, 집안에 악행이 없는지,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이 없는지 살피며, 가족들이 잘 살아 나가는 지 살피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실로 매우 중요

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신앙만 조금 더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엔사인, 1997년 3월 호, 27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1985년~1994년, 교회 대관장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은 영감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매달 활동적 및 활동이 저조한 교회 회원 각자와 접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더욱 강조하십시오.” (엔사인, 1987년 9월 호, 4쪽)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하는 영감 받은 신권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교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줄 것이며 교회 회원과 가족이 높이 들어 올려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신권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신권의 방편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그저 단순한 입무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르입니다.”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49쪽)

“가정 복음 교육의 횡수와 질적인 교육이 모두 필수 요건임을 기억하십시오. 방문이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 되게 해야 하며 매월 가족과 접촉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목자로서 활동 회원이든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든 여러분은 아흔 아홉 마리 양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는 말이지만, 방문 교사들이 자기들에게 지명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 대신 전화 방문을 하거나 짧은 편지를 써서 전할 수 있다.

활동 회원 수에 비해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수가 월등히 많은 지역에서는 신권 지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복음 선교사가 때로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 가족 방문을 지명 받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의 동반자가 된다.

### 메시지를 전달함

때때로 비공식적인 상황 속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부 가정 복음 교사들이나 방문 교사들에게는 어색한 일일 수 있다. 메시지 전달과 관련 있는 워드 내의 모든 회원들이 완전한 활동 회원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메시지 전달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리고 성인들과 십대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에게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들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회원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복음 토론을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 어색함은 훨씬 더 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를 유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미주리 케이프 기라도우 스테이크 부장 래리 더블류 왓킨스는 만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들이 스스로 읽도록 팜플렛이나 기사물을 복사해서 거기에 두고 가라고 권한다. 또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러한 회원들을 특정한 파티, 노년의 모임, 또는 활동에 초대하여 그 모임의 주제 내용과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이다.

텍사스 콜리츠 스테이션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 잭 쿡은 이렇게 말한다.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을 하러 갈 때에는 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스테이크의 한 대체사 그룹 지도자는 그의 동반자와 함께 홀어머니와 딸만 있는 한 가족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비록 활동 회원이었지만 방문하면 영적으로 ‘공허한’ 이야기만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발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족을 방문했을 때, 이 대체사 그룹 지도자는 마음에 강한 느낌을 받아 그 자매에게 성전 참석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



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성전 참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 자매는 성전 참석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워 진전을 보였고 놀랍게 발전하였습니다. 성전에 참석했던 날, 그 자매는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가 영의 속삭임을 듣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 메시지를 받아들임

방문 받고 있는 가족과 개인들이 인내를 하면 역시 그 가정에 성신을 끌어들이 수 있다. 유타 웨스트 리하이 스테이크, 리하이 제3와드의 회원인 린다 스타우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가 맡은 회원들에게 언제나 방문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맡은 방문 교사의 방문도 언제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알린 하디 자매님과 완더 잔슨 자매님이 저의 방문 교사가 된 후에야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딸들을 보살피고 축복하고 가르치도록 이 프로그램에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물론 하디 자매님과 잔슨 자매님은 축제일마다 저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셨고 저의 생일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 분들이 매일 저에게 방문 교육 메시지를 읽어 주신 태도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자매님들은 70대 노인인 까닭에 때로는 글씨를 보는 데 힘들어 하였고 때로는 말씀하려고 하실 때 말을 더듬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이 메시지를 읽으실 때마다 보여 주신 그 정성스런 태도를 보고 그 분들이 주님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 가운데는 방문 교사들이 단순히 소리내어 월간 메시지를 읽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린다 스타우트 자매는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왔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녀는 성신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방문 교사들에 대해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은 매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52쪽)



엘레인 엘 잭 자매

1990년~1997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방문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어머니요, 자매요, 조력자요 동반자 및 친구로서 일합니다.” (처치 뉴스, 1993년 9월 4일, 6쪽)

“방문 교육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뻗칩니다. 행동이나 몸짓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포용은 여러 권의 책이 표현하는 만큼 많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웃음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함께 나누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매의 짐을 우리가 항상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녀가 그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녀를 격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처치 뉴스, 1992년 3월 7일, 5쪽)

“우리는 일대일의 개인 방문의 가치를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초창기 시절에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나무 주변을 걸다녔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 타히티의 패피트에 있는 자매들도 서로를 방문하고 보살피기 위해 이웃 가정으로 다닙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세심한 보살핌을 행하는 전세계적인 여성 단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매우 가슴 벅찬 일이라 생각됩니다. 방문 교육을 하러 가면서 때때로 저는 캐나다의 마니토바나 멕시코, 프랑스, 또는 [러시아]에 있는 자매들도 나와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방문 교육을 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조직의 일부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

## 지리적으로 먼 거리

말일성도가 많은 지역의 와드/지부들 가운데는 면적이 불과 몇 평방 킬로미터밖에 안되는 와드/지부도 있지만 와드/지부의 경계가 수백 평방 킬로미터나 되는 곳도 많다. 알래스카 페어뱅크 스테이크 노스 스포츠 지부는 면적이 무려 20,000평방 킬로미터 이상이나 된다. 게다가 이 지역은 연중 수개월 동안 깜깜한 밤이 하루 24시간 계속 지속된다. 기온은 영하 46도(섭씨)까지 떨어질 때도 있다. “겨울에는 북극곰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요” 약 5년간 지부장으로 봉사했던 게일린 풀러 형제는 익살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리적으로 우리 지부는 교회에서 가장 넓은 지역일 것입니다. 캐나다 국경 근처에 우리 지부의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소련 국경 근처에도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지역은 장거리 전화로 방문을 합니다. 우리는 달마다 우리 회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요. 만일 그 가정에 청소년들이 있으면, 청년 회장과 청년 회장도 역시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이들 가족들이 한 달에 서너 차례 전화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대회 관련 자료와 교회 방침 및 교회 소식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내 주기도 합니다.”

직접 방문이건 전화 방문이건 회원들간의 연락은 유지된다. 현재 자신의 지부에서 10명의 동반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 복음 교육 책임을 맡고 있는 풀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테일러스 스테이크도 역시 노스 스포츠 지부 만큼은 넓지 않지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가브리엘 필라자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지역은 지금 경제적으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가계를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휘발유 값도 충분하지 못해 방문 교육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라자 자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스테이크 자매들은 월간 방문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할 수 없으면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정상 모든 회원을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할 수 없으면, 피방문

자 명단에 실린 사람들 중 한두 사람만이라도 먼저 방문하라고 우리는 권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전화 방문이나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자매, 한두 사람을 방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적어도 분기당 한번씩은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는 나이 드신 자매들도 우편을 통해서 가정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필라자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나이 드신 자매님들에게 활동이 저조한 자매 몇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회원들에게 한 달에 한번씩 편지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편지에는 상호부조회 가사 모임과 다가오는 와드 활동에 관한 내용이 실리지요. 그리고 언제나 편지 수신자에게 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게 합니다. 최

근에 한 자매는 여러 해 동안 편지를 보냈던 여인에게서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 다. 그것은 그 자매님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었 습니다.”

### 십대 청소년들을 훈련시킴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이 학교 활동, 직장, 친구 등으로 바쁜 아론 신권 형제를 동반자로 배정 받을 때, 가정 복음 교육은 그 나름으로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아론 신권 형제들 중에는 가정 복음 교사의 임무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이해할 만큼 아직 가정 복음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아론 신권 형제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동등한 동반자로 가정 복음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테네시 차타누가 스테이크 힉슨 와드의 회원인 릭 영블라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동반자 자렛 마르토허 형제는 언젠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교사



로 성임된 형제이지만,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자신의 부름은 우리 와드의 모든 회원들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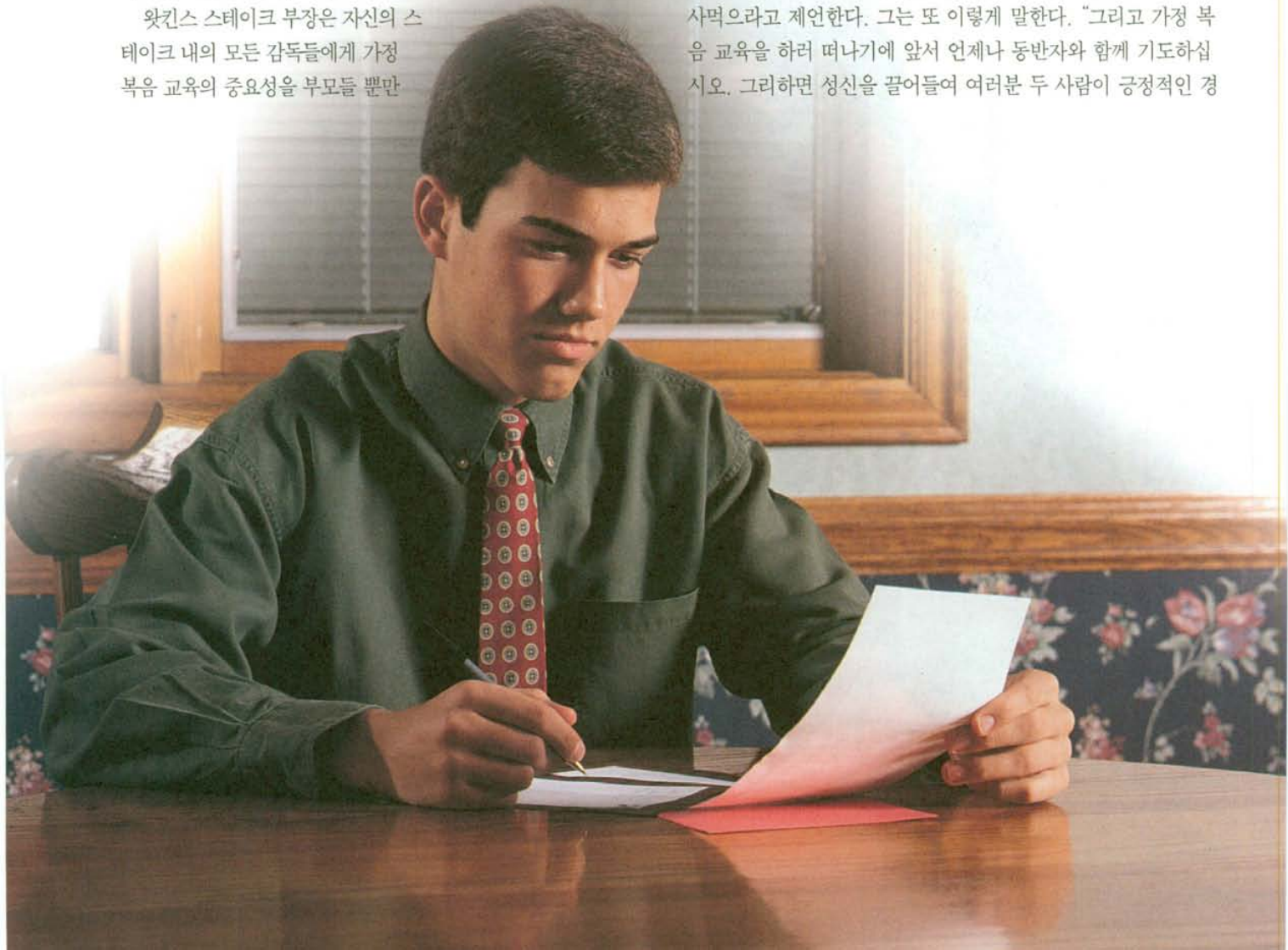
영블라드 형제와 자렛 형제는 교대로 월간 메시지를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이들이 가정 복음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섯 가족들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 목록을 작성해 놓았다. 영블라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매월 함께 모여서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한 짧은 편지를 씁니다. 다 쓴 후에는 그것들을 자렛 형제가 우편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자렛 형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 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고 그들이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물어보곤 합니다.”

왓킨스 스테이크 부장은 자신의 스테이크 내의 모든 감독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을 부모들 뿐만

아니라 아론 신권 형제들에게도 설명해 주라고 권고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들은 청남이 자신의 부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에게는 자신의 동반자를 알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관심을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반자의 생활과 활동에 대해 알아낼 때, 그것은 그의 생활 일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는 두 사람에게 다 적합한 시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앨버타 카드스톤 스테이크 부장 마이론 아더 피터슨은 방문을 마친 후 아론 신권 형제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먹으라고 제안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떠나기에 앞서 언제나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성신을 끌어들이 여러분 두 사람이 긍정적인 경



힘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들을 보살피 줌

방문 교육은 나름대로 독특한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타 두체스니 스테이크, 두체스니 제2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 캐리 후페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때때로 “방문 교사들은 방문하러 가는데 자기들의 어린이를 데리고 가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이 봐주는 사람을 구하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와드에는 어머니들이 방문 교육을 하러 가는 동안 아이들을 봐주는 자매들이 있지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그 자매들의 방문 교육이 됩니다.

“우리 와드에는 또 저녁에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녁에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방문 교사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문 교사의 남편들이 퇴근 후 아이들을 보살피 주기 때문에 방문 교사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또 직장을 가진 자매들의 경우, 낮에 방문 교육을 할 수도, 방문 교육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지요.”

방문 교육에 있어서 융통성은 필수적인 것이다. 후페즈 자매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한다. “우리 와드의 한 자매는 오전 7시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두 명의 자매들이 그 임무를 받아들이었습니다. 이 밖에 근무하는 날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방문 교육하러 가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 방문 받는 자매들 쪽의 각양 각색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시간대에 방문 교육을 하러 가는 자매들도 있지요.”

뉴저지 체리 힐 스테이크, 무어즈타운 와드의 전 상호부조회 회장 크리스틴 윌리즈는 자기 와드의 많은 자매들이 교대로 아이 봐주기를 한다고 보고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들 말해요. ‘내가 방문 교육하러 가는 동안 자매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 주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자매님의 아이들을 봐줄 테니깐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받아 방문 교육은 끝나지요.”

### 정규적인 접견은 크게 도움이 됨

지역 지도자들은 모두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들이 똑같이 이 부

음으로[1992], 142~143쪽)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1984년~1990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방문 교육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넓히고 비이기적으로 봉사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방문 교육은 복음의 진수로서 모사이아서 18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다음의 원리들을 실천할 기회를 줍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며... 어느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할진대’ (엔사인, 1997년 3월호, 33쪽)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1973년~1985년, 교회 대관장

“방문 교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정 복음 교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며, 나는 여러분의 임무가 여러 가지 면에

서 가정 복음 교사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란 간단히 말해서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한달 동안에 20분이 아니라 항상—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여'—문만 두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힘을 주며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악행이 없는지... ,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이 없는지' (교리와 성약 20:53~54)를 살펴야 합니다. ...

"성공적인 방문 교사가 되려면 높은 목적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여야 하며, 예리한 통찰력, 식을 줄 모르는 무서운 열의,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큰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빛, 1978년 12월호, 2, 3쪽)

"모든 가정 복음 교육 교사들, 선교사나 계보 사업이나 복지 및 모든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자들이 모든 의미에서 복음 교사가 되어 결혼 생활을 비롯한 가족들의 영적, 세상적, 재정적, 도덕적인 모든 면을 돌보는 그날이야말로 축복 받는 날이요,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 [1982년], 524쪽)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1974년~1984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재원을 사용하고 조화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 일은 태초로부터 명령되어 온 일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서로서로의 집을 방문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우정과 도움을 주고 매일 부딪치는 문제점들을 마주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앤시인, 1997년 3월호, 37쪽) □

름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신약 시대에도 예인자들은 회원들에게 서로 부지런히 돕고 봉사할 것을 권고했다. 베드로전서 5:2~4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초기 교회사를 보면,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히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고,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20:51, 53)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에게 그들의 부름의 신성함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접견을 하는 것이다.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 지침서[1990년], 9~10쪽, 상호부조회 지침서[1988년], 4, 15쪽) 아이다호 카레이 스테이크의 알 스펜스 엘스위스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방문 교사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설명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되도록이면 지도자의 접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과 방문 교사들은 방문을 받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그 가족을 돕고 축복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뉴햄프셔 콩코드 스테이크 만체스터 워드 소속, 덴 맥클레인 형제가 장로 정원회장으로 있을 동안 그 형제와 그의 보좌들은 가정 복음 교사 접견을 월 평균 30명 가량 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접견은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임 시작 전후의 시간과 주중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접견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감사 표시를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부름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문제, 방문 일정의 불일치 등과 같은 가정 복음 교

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단에 올라있는 모든 회원 가족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회원 가족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가족이 학업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는 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는 합당한 경로를 통해서 청년 회장을 참여시켰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 재정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 접

견에서 얻은 정보를 그 정보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해당 조직에 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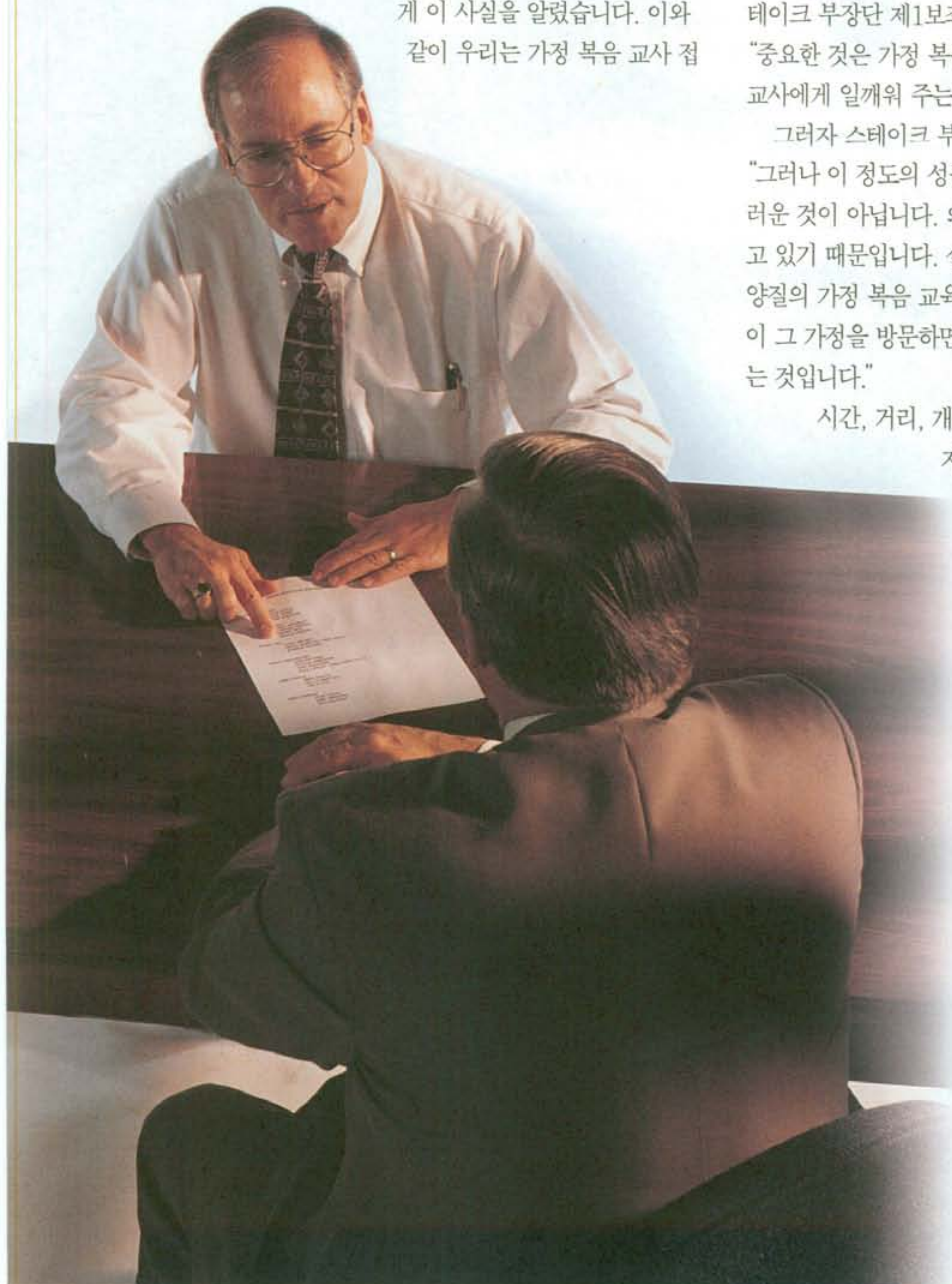
맥클레인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의 말을 끝맺는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는 가정 복음 교사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회원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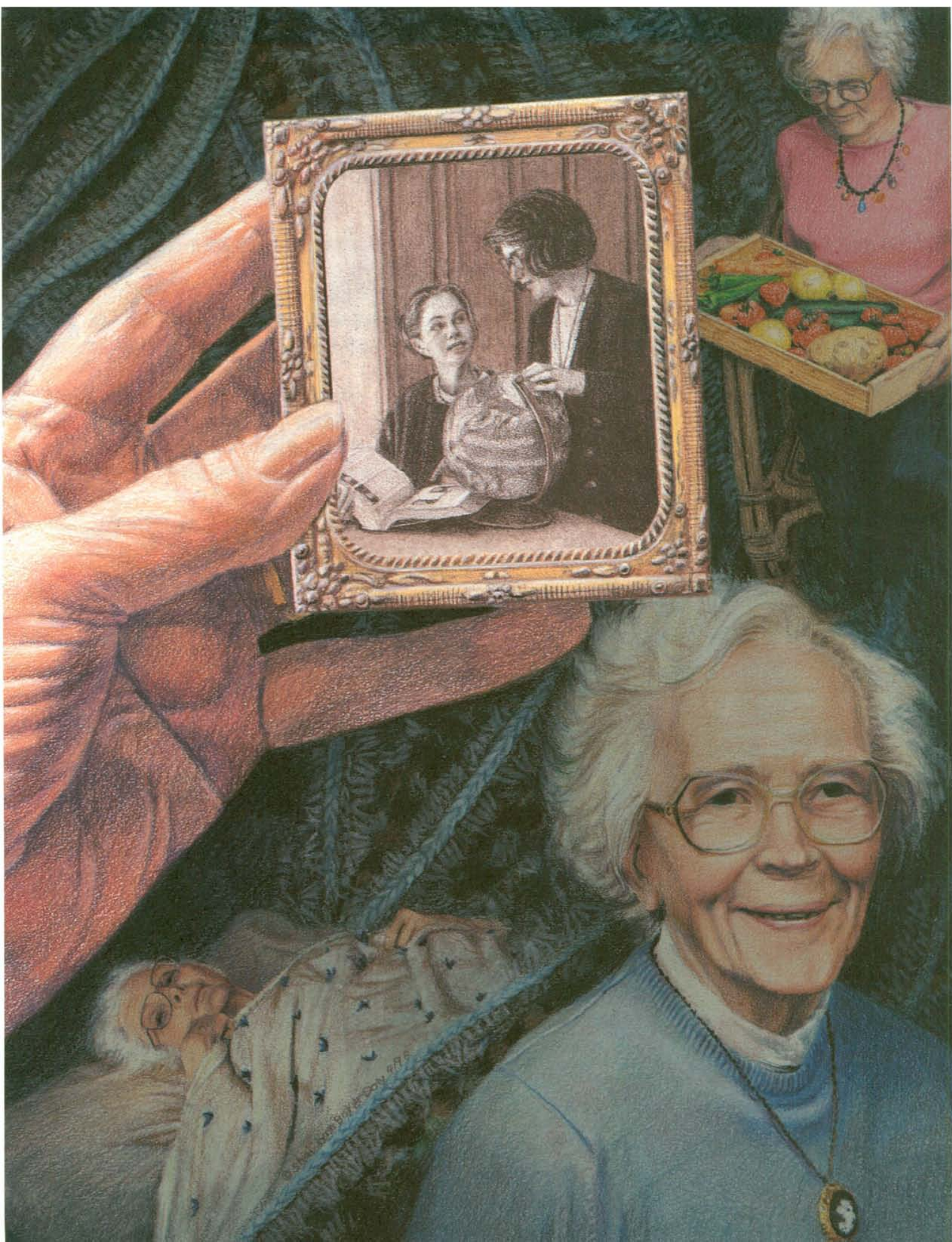
테네시 차타누가 스테이크의 가정 복음 교사들은 지난 수년 동안 매월 그들에게 할당된 회원들 중 약 90퍼센트를 방문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제임스 엘 바루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 복음 교육 접견이나 전화를 통해서 가정 복음 교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테이크 부장 달라스 라인이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공으로 기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보다 양이 우선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양질의 가정 복음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부터 가정 복음 교육은 훌륭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 거리, 개성, 태도 등 과제들은 계속 존재한다. 윌리스 자매도 이를 인정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복음 교사들과 방문 교사들이 침례식과 성전에서 맺었던 성약을 받아들여 이를 생활화하도록 돕는다면, 거기에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부름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름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기 때문이지, 숫자를 채우려 하거나 보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







# 에스더의 마지막 선물

베스 데일리

그 혹한의 1월 어느 날 아침 유타에서, 성급히 뛰어가는 의료진과 구급차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내가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에스더의 두 손이었다. 언제나 남에게 봉사하느라 분주하기만 했던 그녀의 길고 튼튼한 손가락들은 경련만 일으키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주려 내 손을 뻗었더니, 에스더는 감은 눈을 뜨고 잠시 실룩거렸다. 그러더니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녀의 나이트가운을 똑바로 해주고 모포를 덮어 주면서, "아무 걱정 마세요, 에스더,"라는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의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에스더는 내 말에 마음을 놓는 것 같았다. 이윽고 우리 둘은 구급차에 태워져 근처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에스더를 그저 이웃 사람일뿐이라고 부르는 것은 태양을 단순히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에스더의 손길이 처음 내게 닿은 것은 내가 10대였을 때였는데, 그녀는 나를 중학교 도서관에 있던 보배로 인도했던 사람이다. 그녀의 손길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웃 전체에 지식과 봉사를 베푸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여러 젊은이들을 고용해, 나뭇가지를 자르고 과수원을 돌보는 법을 인내로써 가르쳤다. 또한, 어떻게 살기 좋은 이웃을 만들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었다. 에스더는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돌보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지리적 경

계를 넘어 서로 우정으로써 보듬어 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게 했다.

그 분주하던 겨울,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소망에 불과했다. 당시 나는 아주 좋은 일터에서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다섯 살에서 스물 다섯 살에 이르는 자녀를 다섯이나 둔 무척 바쁜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애들 가운데 둘은 서로 몇 주 간격으로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그렇듯 나는 날마다 가족, 직장,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 일 등에 놀려, 하루하루 사는 것 외의 다른 일들을 할 힘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욕망이 늘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침마다 나는 하루 전날 이런 일들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날에 행해야 할 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계획을 짜고는 했다. 나는 “힘과 수단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10:4 참조)는 주님의 훈계를 떠올리면서, “아마 내일은 시간을 내서 어떤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아픈 친구에게 꽃을 갖다 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내게 있어서 봉사는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을 위해 집에서 사탕이나 도너츠를 만드는 것,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 줄 빵을 굽는 것, 혹은 커서 못 입는 옷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 등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추운 겨울 날, 에스더의 병상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그녀에게서 봉사란 그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있다.

“에스더, 내 손을 꼭 잡아보세요.” 담당 의사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자, 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에스더가 응답했다. 그러나 힘이 없는 탓인지 말이 안으로 숨어 들었고, 목소리 또한 점점 작아졌다. 의사는 꼼짝도 못하는 에스더의 손을 쳐주면서 고개를 저었다.

의료진이 응급실에서 그녀의 병상을 밀어내기에, 나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에스더, 다른 병실로 옮기시나 보네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세삼 확인이라도 하듯 내 눈을 보더니,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에스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늘 쫓기는 생활을 하며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요일에 할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질

않았다. 가족들 걱정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에스더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작고 살풍경한 병실 속에서도 그들의 기도는 나와 함께 했다.

아침인가 했더니 벌써 오후였다. 다른 주에 있는 에스더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녀의 상태를 알렸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위급 상황의 당사자들인 병원과 에스더와 그녀 가족들 사이에서 연락병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에게도 말을 해주었다.

나는 에스더 곁에 앉아 폭풍우를 실은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의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35년 전으로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다. 다른 사람들은 연로하신 할머니 몸엔 살고 있는 조용한 이방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지만, 내 어머니는 나에게 할머니 손을 잡고 쓰다듬어 드리면서, 그 분과 말을 하라고 하셨다.

“아마 할머니가 네 말을 듣고 계실 거다. 비록 대화는 못하지만..” 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네 소리를 듣고 사랑을 느끼실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만져 드려서, 네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 드리렴.”

몇 년간 나는 어머니 말씀에 잊고 지냈었다. 하지만 에스더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마비된 손을 만져 주며, 내 속삭이는 듯한 기도가 작은 병실을 가득 메웠을 때, 다시금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윽고 병실은 에스더의 가족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그녀 주변으로 몰려들기에 나는 자리를 비워 주었다. 이들은 축 늘어진 에스더의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갔다. 갑자기 아침내 나를 움짱달짝도 못하게 했던 위급한 필요 사항이 멀리 사라져버렸다.

담당 간호사가 에스더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환자 분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말을 하시려 했지만, 지금은 의식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모르시죠.”

문간에 서서,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힘없는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방금 전보다 더 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에스더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활짝 펼치고 있었다. 나는 감사의 눈물을 닦아야 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그녀가 내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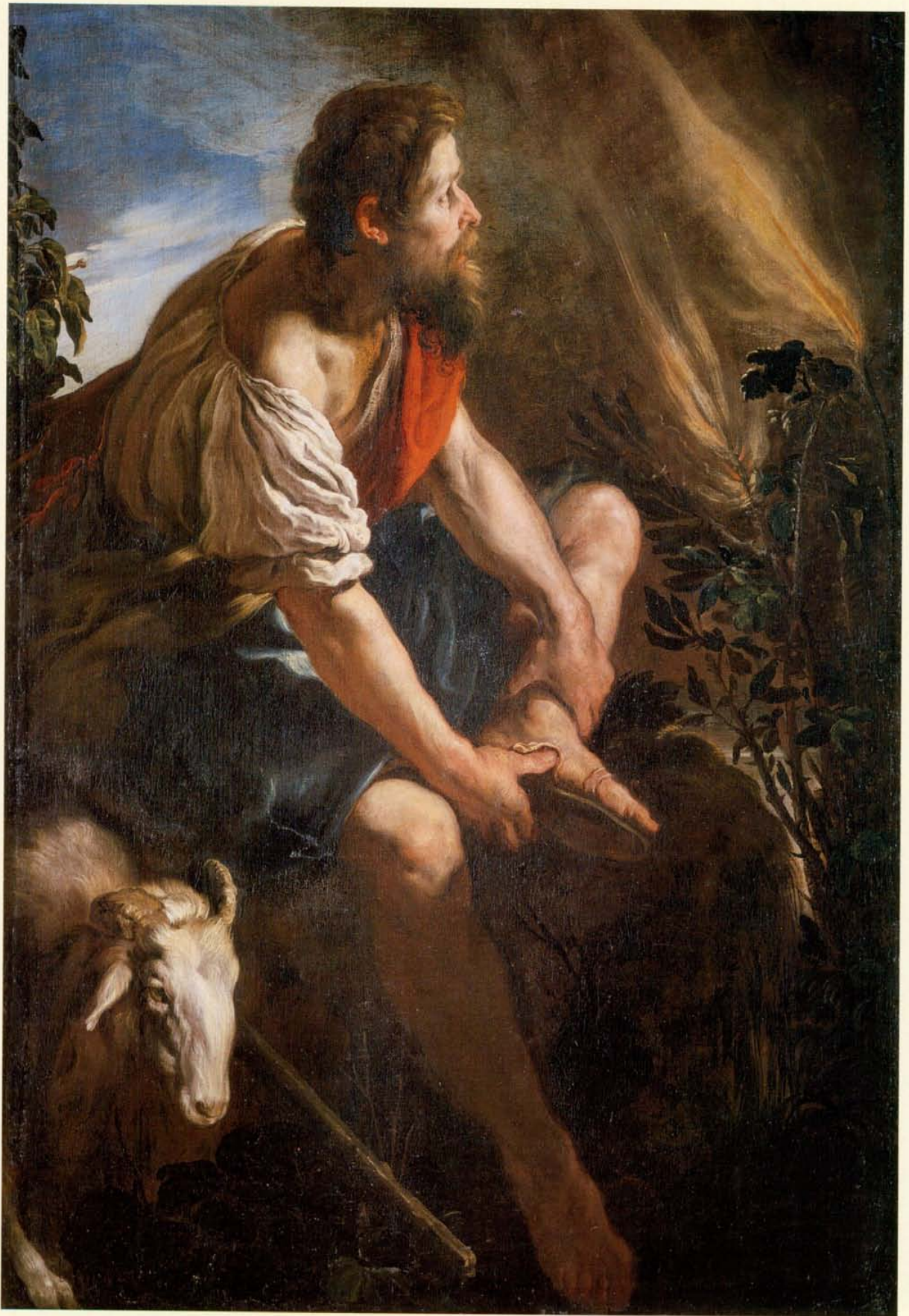


그림: 도메니코 페티, 모세와 떨기나무 불꽃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2~5)

비엔나 쿤스티스토리헤스 박물관 제공



“저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 다음  
두 가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위대한 부름에  
관련된 책임을 수행할 도전.

둘째는 자신의 활동.

특히 우리들 가운데 활동이  
저조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얻  
는 흡족함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34쪽 참조)

